



식약처,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식용부산물 동물용의약품 기준 설정 논의 주도

- 제2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동물용의약품잔류분과에서
대한민국 주관 세미나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2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동물용의약품잔류분과(3.22.~3.27., 미국 미네아폴리스)에 참석하여 식용동물의 부산물** 동물용의약품 국제기준 설정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1962년 FAO-WHO가 공동 설립하여 식품의 국제교역 촉진과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별 기준과 규격을 제정·관리하는 국제기구

** 식용동물의 부산물: 축·수산물 등 식용동물의 지방, 간, 신장을 제외한 식용이 가능한 내장, 뼈, 혈액, 껍질 등 부위를 말함(이하 '식용부산물')

이번 세미나는 식용부산물의 동물용의약품 기준 설정 방법을 논의하는 본회의에 앞서, 우리나라의 기준 적용 방식을 국제표준으로 반영하고자 마련되었다.

식용부산물은 근육(고기)에 비해 섭취량이 적고, 국가별로 섭취하는 부위의 종류가 다양하여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용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세미나에서는 식용부산물에 잔류되는 동물용의약품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식용부산물에 근육(고기) 기준을 적용하는 우리나라 방식에 대해 회원국의 규제 담당자들(188개국 250여명)과 의견을 공유하였다.

이번 CODEX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 적용 방법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했으며, 우리나라 규제과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국제표준 논의를 주도하여 관세 장벽 해소와 K-푸드 수출 지원에 앞장설 계획이다.

담당 부서	식품기준기획관 유해물질기준과	책임자	과 장	박성관 (043-719-3851)
		담당자	연구관	고영호 (043-719-3852)
협조 부서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종동 (043-719-2010)
		담당자	사무관	박재우 (043-719-2023)



